+

갈수록 팍팍한 농촌생활…만족도 ↓ · 미래 비관 ↑

국회·협동조합 신뢰도 지속 하락 이재명 정부 농업정책 기대 상승 가장 기대하는 사업은 '기본소득' 서삼석 "근본적 농정 개혁 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농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 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8일 '농업인 의견조사' 6년차 결과를 발표했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 로 '농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 국 농협 조합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농민 비율 을 반영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촌 생활 만족 도는 2020년 37.3%에서 2025년 30.5%로 6.8%p 하 락했다. 또한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1%에서 2025년 5 1.8%로 10.8%p 늘었다.

농촌의 생활 수준 개선 체감도 역시 낮았다. 응 답자의 절반 이상(56.1%)이 '5년 전과 비슷하다' 고답했고,도시생활대비'농촌이더낮다'고응 답한 비율은 2020년 72.8%에서 2025년 74.3%로 체 감 수준이 더 악화돼 있음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정당),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농협·산림 조합 등), 농민·시민단체 등 농업 관련 주요 기관 의 중요성 인식은 높아졌으나, 협동조합(농협·산 림조합등)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20년 3.87점에서 2 025년 3.71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신뢰 최하위 기관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업 정책 기대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역대 정부별 농업정책 만 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20 21년)는 271점, 윤석열 정부(2024년)는 220점이 었으나, 이재명 정부(2025년)는 296점으로 전 정 부대비 0.76점 상승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새로운 정부의 농 정 방향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농업 관련 사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3.66점)이 꼽혔다. 신규 공익직불 제 중에서는 '청년직불제'(3.43점)가 가장 높은 필 요도를 기록했다. 또한 '동물복지직불제', '친환경 ·탄소중립직불제'도각각3점이상으로긍정적평 가를 받았다. 이는 농민들이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교체를 위한 정 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시시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는 53.9%가 '도움이 된다'고 응 답했다. 특히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농민 3명 중 2명(63.9%)이 '시급하다'고 답해 법 제화에 대한 농민의 절박한 요구가 드러났다.

반면, 농촌 빈집 관리·활용 정책 평가에 대해

'효과가 없다' 39.1%, 농어업고용인력법의 실효 성에 대해서는 38.2%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 해 실효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조사 결과는 농민들이 체감하 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 여준다"며 "정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 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 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며 "정부는 농심(農心)에 귀 기울여 식량안보・ 정주여건·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생활 여건 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전남도, 올해 15개소 건립 · 개보수 내년 진도 등 3곳 추가 확충키로

전남도는 2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과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충을 위 해 올해까지 15개소의 건립·개보수를 지원하 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초 건의해 추 진된 2022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 지원 등 처우개선 사업도 발굴·지원하고 있 로 4개소(담양·해남·영암·무안)를 건립해 운 영하고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 11개소를 지원

또한 2026년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 해 진도군(35억원 투입)이 선정됨에 따라 기숙 사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6년 도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공모가 확정된 1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3개 소를 더 갖추게 된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5천25명을 배정받았 다. 이달 기준 9천여명이 입국해 근로 중이며 무 ·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작업 등을 위해 하 반기에도 계속 입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 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 시, 인권과 주거 여건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언어 소통 도우미·치료비·성실근로자 항공료

또한 전남 계절근로자 광역 지원센터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입국, 필수교육 등 주요 유치 절 차의 시·군 개별 추진에 따른 행정의 중복·비효 율성을 개선하고 전 과정을 통합 지원·관리함 으로써 근로자 조기 적응과 농가 인력수급 안정 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GCC사관학교 제2기 수료식'에 참석해 교육생 성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실무형 문화콘텐츠산업 전문가 106명 배출

광주지역 대표 교육기관인 GCC사관학교가 제2기 수료생 106명을 배출하며 실무형 인재 양 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GCC사관학교 제2기 수료식을 열고 7개월 간의 전 문교육과정을마친 106명의수료생을배출했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가 문화콘텐츠산업 기반부터 전문인력까지 단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인재 양성 기관이다.

지난해 1기 수료생 71명이 취·창업에 성공한 데 이어, 2기 수료생 중 22명이 이미 취·창업에 성공 하며지역대표교육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혔다.

2기 교육 과정은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실 감콘텐츠 등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 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광주 GCC사관학교제2기 수료식

현장 역량 강화…22명 취·창업 확정 문화콘텐츠 인재육성 거점 자리매김

교육생들은 948시간의 기초·심화 및 취업 멘토 링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25개 협력 기업과 3개월 간 현업프로젝트를 수행, 실습 역량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교육생의 인성과 실무 역량 을 사전 검증하고 GCC사관학교는 현장 수요를 교육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산학 협력 기 반 상생형 인재양성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수료식은 '빛나는 인재들의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료식장에서는 교육생들이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 게임, 웹툰 등 다양한 결과물을 전시한 성과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수료식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생 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등 현장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뤄졌다.

또 'GCC사관학교 홈커밍데이'를 마련해 1기 수료생들이 후배들에게 취업 성공 사례와 조언 을 전하며 선후배 간 교류를 이어갔다.

강기정 시장은 "GCC사관학교는 기업 협력 을 결합한 광주의 대표 청년 인재 양성 브랜드 로 자리 잡았다"며 "GCC 출신 인재들이 광주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 한다"고말했다. /변은진 기자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돌연 사의

잔여 임기 10개월…내년 교단 복귀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초대 사장이 임기를 10 개월 가량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일신상 의 이유로 광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은 2023년 9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 년 9월까지다. 광주관광공사는 조만간 후임 공 모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관광공사 사장은 시 장과 임기를 일치하게 한 시 조례의 적용을 받 지 않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국립아 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재)광주관광재단 대 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진강 사장이 내년에 교 단에 복귀할 예정인 만큼 학기에 들어가기 위해 올해 사직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當 062)222-1095, 1096

대명OA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취/급/품/목

- 목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A/S ▫임 대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대료

구 상 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

광주 북구 주거지역 땅 평당330만원 급처분

-10미터 포장도로접 1,110평 / 전남대2,300미터거리-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